

광주시, 美 실리콘밸리에 무역사무소 설치

기술·자본 유치...유망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도움
“AI 산업 육성... ‘인공지능 중심도시’ 위상 다질 것”

광주시가 중점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의 위상 다지기에 나섰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연구소가 밀집한 실리콘밸리에 광주시 공무원이 상주하는 무역사무소를 열어 기술·자본의 광주 유치를 꾀하려는 시도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

리콘밸리에서 운영 중인 무역관에 광주시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신 로스앤젤레스(LA) 무역관에 운영 중인 광주시 무역사무소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파견 공무원을 선발해 다음달 중 실리콘밸리로 보낼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무역사무소 파견 공무원은 1명으로, 약 2년간 체류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자본 등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

이는 광주시가 실리콘밸리 현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인공지능 연계사업 타격화를 통한 유망기업, 연구소 등 유치활동을 집중 전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리콘밸리 광주 무역관 설치를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AI융복합 대표 도시라는 점을 홍보하고 이에 따른 실리콘밸리 자본 유치와 함께 광주지역 내 AI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는 현재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사무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국내 최초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 창립하는 등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광주테크노파크 대화의실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와 4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태우 장남 재현 씨 “광주 아픔 공감”... 5·18 피해자 만나 사죄

DJ센터 방문...“광주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 구할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53)씨가 지난 8월 국립5·18민주묘지를 다녀간 후 3개월 만에 광주를 다시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다녀 갔다. 8일 오월어머니집과 노씨와 같이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등에 따르면 노재현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 시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 이날 사전 연락을 하지 않은 노씨가 직접 오월어머니측에 방문 의사를 밝혀, 오월어머니집에 머물고 있었던 정현애 이사장 등 오월어머니집 관계자 2명과 30분가량 대화를 하고 돌아갔다. 정 이사장은 오월어머니집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씨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책을 가지고 방문한 노씨는 “이책을 보고 용기

를 얻어 광주를 방문했다”면서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대신해 찾아왔다.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되길 바란다”고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희생자를 향한 사죄의 뜻이 진정성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씨는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기념전시관도 방문했다. 노씨는 방명록에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남기고, 김 전 대통령이 교도소 복역 당시 입었던 수형복 등을 오랜시간 응시했다고 동행자는 설명했다. 노씨는 이동간에 동행자들에게 ‘5·18의 진범은 유인비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최근 광주시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현(오른쪽 두번째)씨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위원장 노혁환씨 제공>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개정판을 낼 지 상의해 봐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또 이 자리에서 노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하토야마 유키오의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를 할때까지 해야한다’는 문구를

따라 광주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노씨는 지난 8월23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이틀째 소환 ... 황운하 고발 경위 등 조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8일 낮 12시께 출석한 박 전 실장을 상대로 오후 5시께까지 약 5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황운하 대전 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게 된 경위와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전날에도 밤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경찰 조서에 익명으로 박 전 실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진술을 남긴 인물이 송 부시장임을 파악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16일 울산청이 자신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발의 수 있었던 것은 송 부시장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 때문이라며 송 부시장의 권력형 선거 부정 사건에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도 6일과 7일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그의 집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박 전 실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 첩보를 근거로 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였다. 경찰은 당시 박 전 실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작년 3월 16일 전후로 송 부시장을 3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자신의 첩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점과 경찰이 진술 조서에서 익명을 사용해 송 부시장의 신원을 가린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 10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순천 구산양반엿 김순옥 대표, 대한민국 식품명인 400년 전통제조법에 현대화 접목... 전남 17명 지정

순천 구산양반엿농조합법인 김순옥(여·63·사진)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잡쌀조이당 조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도는 홍성리(매실농축액), 신광수(야생작설차), 유영군(창평쌀엿), 양대수(추성주), 오희숙(부각), 박순애(엿강정), 기순도(진장), 한한자(동국장), 전중석(초의차, 초의병차), 김영숙(북령조화고), 김경식(병영소주), 안복자(유로), 백정자(즙장), 임화자(쇠고기육포), 구경숙(기정떡), 박규완(가리구이)에 이어 17명의 ‘전남의 맛 장인’을 갖게 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각 사·도에서 총 27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 3명이 선정됐다. ‘잡쌀조이당 조청’으로 지정된 김순옥 명인은 고유의 전통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청의 표준화 및 품질 고급화를 구현했다. 순천 주암면 구산마을 종갓집 며느리로서 문중 시제를 지내며 시어머니로부터 조청과 쌀엿 제조법을 전수받아 38년간 전통의 맛을 이어오고 있다. ‘조이당 조청’은 400년간 옥천초 집



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조청 제조 방법이다. 찹쌀과 엿기름가루를 당화시켜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다. 순천 주암면 구산리 전남 지방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화산제(구산물보가uct) 등 구산마을에서 행하는 각종 제사에 조청과 쌀엿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식품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1994년부터 도입했다. 올해 3명이 지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77명이 지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조개 대량생산 길 열렸다

전남해양수산원, 인공종자 생산량 10배 이상 늘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린 새조개 종자(치패) 생산량을 10배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 소고기보다 비싼 조개 중의 으뜸으로 알려진 새조개의 생산량 증가는 당장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새조개는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 조개로, 육질부의 발 모양이 새 부리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갈매기조개’, ‘오리조개’라고도 불린다. 1kg당 2만~4만 원(패각 포함)의 고가에 거래되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내, 일본 등에서 개발된 어린 종자 생산기술은 모래, 황토 등을 활용한 것으로 생존율이 낮고 관리 문제로 산 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착수, 국내 최초로 50만 마리를 방류했

다. 이어 2015년 양식가능성 시험을 추진, 올 6월 유생 착자에 적합한 ‘다충형 채묘시설’을 활용해 2mm 이상의 치패 100만 마리를 생산했다. 특히 기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성, 인건비, 자체비 등 절감효과를 확인했다. 현재는 본 양식 예비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2~3cm까지 성장한 상태다. 10t 육상수조 기준 다충형 착자 채묘기 사용 시 1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바닥식 생산량(10만 마리)의 10배 수준이다. 오광남 원장은 “새조개 어린종자 대량 생산기술과 현재 추진 중인 중간육성 기술을 접목하면 완전양식에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 인공종자 대량 생산과 중간 육성 기술개발 시험, 2021년 양식기술 개발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光州日報
·
매일
·
제1149호

광교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2020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34억원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중역 및 불용예산 발생 시 당해년도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고 다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재신청함

2.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조), 관광레저관광사업(등록증 소지자),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제(관련법 제4조)
○ 지원대상 농민단체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관련법 제6조)

※ 지원대상 기업 중 자격 필수요건
1. 은행여신장부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2. 창업 및 이전기업은 사업개시 및 이전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3. 금융기관 연계종이거나 세무계산중인 대표자 및 기업은 제외

3.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자금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스마트 공장, 청년창업기업 등 신성장분야 확대
○ 고용유수기업 대상 지원 인센티브 확대에 한하여 금융우대 혜택 제공

4. 지원내용
설계비, 부지조성비, 건물 시·계축비, 기계 및 장비구입비 등
시설자금 (제조·광업(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영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도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비 포함))

5. 지원조건

구 분	기간 (거치/상환)	융자 한도액	융자비용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기준 (18.4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가능함
2. 운전자금은 18.4분기 대출금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이상할(18.4분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대출금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6.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 공감소통-공직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 시·군 1부)
→ 제출서류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신청기간 : 2019.12. 9(화) ~ 2020.1.10(금)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7. 선정절차 및 기간

용자계획 공고 및 접수(시·군)	기업 제출서류 검토(공단)	기업평가에 위한 현장심사 (공단, 지자체)
19.12.9 ~ 20.1.10	20.1.10 ~ 20.1.17	20.1.29 ~ 20.2.14

심사위원회 개최(공단)
20.2.28(금)

선정결과 알람 (공단)
20.3.2

사후관리
~ 계속 ~

※ 일정은 공단 및 지자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업종은 (별첨3) 참고, ‘관광레저업’의 세부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첨4) 참고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89호, ‘17.12.21)’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은 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2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별첨7)

2020년 『근로자건강센터(본소)』 운영기관 공모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안전보건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지 역확 수형
□ 모집개소 : 1개 센터(광주)
□ 지원금액 : 480,000~680,000천원/개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 12월에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사업의 계속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3년(2022.12.31)까지 위탁 가능

②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직업환경의학전문 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산업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 위탁기관 필수 전문인력 기준

구 분	계	의사 (전문)	(산업)간호사	직업환경 전문가	근골격계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센터	7명	1명	각 분야별 1명이상 배치하여 기관 자율운영			

* 필수인력 분야별 인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분야별 1인 이상은 유지하여 함), 필수인력 이외 추가 인력은 운영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③ 사업수행내용
□ 주요 사업내용
◆ 산업보건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전문 건강상담(화상상담 포함)을 통해 질병 예방 이전 단계에서 작업관리 및 건강행동 변화 유도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 및 교육지원
◆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결과와 사후관리 및 지도·관리
◆ 의사에게 부여된 근로자검진결과와 사후관리(근무중 치료, 추적검사, 작업제한성 평가 등), 근로자의 질병 악화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 기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제반활동 등

④ 문의처 및 기타
□ 접수기간 : 2019. 12. 10(화) ~ 12. 14(토) 13: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배달증명, 도착일 기준)
※ 신청서류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제안서 및 발표자료(ot) 1부
◆ 제안서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별첨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제출
◆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충화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관리실
□ 문 의 처 : 공단본부 사업관리실 재정사업부 (전화 : 052-7030-779, 781)
□ 기 타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및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공모계획을 참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9-190호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총 87)

사업명	분묘의위치 및 장소	기수	비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69-1	1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58-39	1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산38-2	1	
	장흥군 장흥읍 북교리 35-30	1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794-1	1	
	영남군 미암면 춘동리 산68-1	3	
	계	8	

2. 개장사유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공사 추진
3. 공고기간 : 2019년 10월 7일 ~ 2020년 1월 6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평화원(김제시 공덕면 대신2길 47-22)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 061-840-5173, 5174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증명 서류 (제적등본, 족보, 신고인 도장, 신분증 등)
8. 기타 : 상기 사업의 편익지분 내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12. 9.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